

美 국무부 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캠벨, 간접 화법으로 “계엄 불법적”(illegitimate) 표현 사용 백악관 “향후 韓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으로 목소리 낼 것” 설리번 “韓 계엄 TV로 파악...우려했지만 민주적 절차 작동”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사진)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

통령이 심한 오판을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외교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캠벨 부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사실에 대해 “그들(한국의 대화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들에 분명하고 굳건하게 맞섰다는 사실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질문받자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 외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의 한국 정부내 우리의 대화 상대방이 거의 모두 (계엄 선포에) 깊이 놀라워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캠벨 부장관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과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은 우리가 매우 반추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잉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이라는 표현이 캠벨 부장관의 자기 판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간접 화법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그들이 자신을 수단과 매커니즘을 통해 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캠벨 부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계엄 선포가 “우리의 깊은 우려를 야기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유사한 상황이 향후 재발할 경우 미국 정부도 계속 반대 내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美 한국학연구소 교수들 “尹 계엄선포 규탄” 성명

하버드대 등 북미 13개대학 “헌법 정면으로 위반” 비판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유수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책임 교수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나섰다.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교수 등 북미 13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은 이날 영어로 된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4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권위주의적 과거를 부활시켰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절차적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선 한국 시민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역사는 대중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정치적 권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증명해 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설립된 근본 원칙을 상기시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사를 외면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며 “이는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하크니스 소장과 신기욱 스탠퍼드대 소련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을 비롯해 UC버클리 안진수 소장, UCLA 이남희 소장, 미시간대 류영주 한국학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소장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청사 앞에서 교민들이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유엔본부 앞에서 ‘尹 탄핵 촉구’ 교민 집회 열려

“민주주의·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집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열렸다.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주동포 비상행동’ 교민들은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맨해튼의 주뉴욕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유엔본부까지 헌정유린·내란수괴 ‘불법 계엄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기

도 했다.

노드돌,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 네트워크 등 다른 미주 교민단체들도 이날 오후 뉴욕 총영사관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연방빌딩 등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고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유엔 사무총장 “韓 계엄 해제 환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이처럼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의 상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부가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것에 대해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 자유가 작동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48시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황을 매우 면밀히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